

7급 예제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

안녕하세요? PSAT 언어논리 전임강사 이나우입니다. 드디어 7급 예제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에 치러졌던 PSAT와는 난이도나 출제경향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언어논리 영역에 한정해서 이야기한다면, 기존에 PSAT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5급 공개채용이나 민간경력 채용 문제와는 출제경향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먼저 글의 내용적인 면에서 기존의 PSAT는 실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소재의 지문들이 많이 출제된 반면, 이번에 공개된 7급 예제문제는 업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의 글을 택하였습니다. 이는 7급 공직자를 선발하는 적성 시험인 만큼, 실제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실무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PSAT 언어논리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예시문제들에서는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문제, 또한 글의 전체적인 핵심 맥락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정답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재는 실무적인 부분을 채택하면서도 업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글(정보)에 대한 이해능력,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올바른 판단 능력의 검증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작되었다는 면에서 기존의 PSAT 언어논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7급 PSAT 언어논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수학능력 시험의 국어 영역이나 5급 공채 시험에서도 요구되었던 독해와 이해 능력, 추론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 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 분들도 이에 맞추어 시험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예시문제들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논리적 판단과 사고 영역이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5급 공채와 민간경력 채용 PSAT 언어논리에서는 상당한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고, 또한 7급도 '언어+논리'라는 시험 과목명을 채택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출제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공개된 문제들이 7급 PSAT 전체의 문제유형을 반영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문제유형들이 공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공개될 예시문제들의 출제경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개된 예시문제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단지 문제의 정답과 해설에만 단편적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출제경향 예측이라든지 혹은 수험생들의 어떤 능력을 검증하고자 출제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와 관련한 능력을 배양할 것인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제경향 분석]

판단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특정의 주장 혹은 글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글의 내용은 실무와 관련이 있는 것을 채택하였지만, 문제 풀이의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이전에 치러졌던 5급 공채나 민간 경력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서 그를 다양한 용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능력을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문제이다.

[정답해설]

⑤ : <A시 보도 자료>의 제목과 ‘리드’를 살펴보면 황사 발생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시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실제 본문에서 상술해주어야 한다. <작성 원칙>에서도 제목과 부제에서 드러내고 있는 핵심 정보를 본문에서 빠짐없이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본 선택지의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 <작성 원칙>에 따르면 보도 자료의 제목과 부제는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본 선택지의 내용은 실제 보도 자료 내용 중 지엽적인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 <작성 원칙>을 살펴보면, 첫 단락에서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리드’ 이후의 단락에서 상술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부분이므로 <작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삭제해야 한다는 본 선택지의 설명은 부적절하다.
- ③ : <A시 보도 자료>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나라의 황사와 관련해서 10년 동안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최근 30년간의 도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본 선택지의 설명은 본문의 내용을 넘어서 과도한 자료이므로 적절한 수정 방안이 아니다.
- ④ : ㉞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황사와 관련하여 중국 내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 선택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A시 보도 자료>의 제목이나 ‘리드’에서 다룬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작성 원칙>에 따르면 불필요한 잉여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글 전체의 통일성 면에서 거리가 있는 본 선택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출제경향 분석]

본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하는 것은 독해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함축하는 것은 곧,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하고 본문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가공의 정보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문제는 그와 관련한 능력을 검증해볼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정답해설]

② : 본문에 따르면, 학술연구자의 연구 업적 정보가 민원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1) 학술연구자가 연구 업적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와 2) 학술연구자의 업적 정보의 집적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이다. 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회화면에서 표시되는 문구를 보고 민원인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된다.

하지만 본 건의 경우 민원인이 해당 문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민원인에게는 위 두 가지의 사유 때문에 학술연구자의 업적 정보를 조회하지 못한 것이라고 안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 이 경우는 학술연구자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 없다.

③ : 본문을 통해서는 해당 학술연구자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본 선택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 학술연구자 A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의 집적이 완료되는 것은 오늘(7월 18일)을 기준으로 한 달이 넘게 걸린다. 따라서 한 달 안에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 학술연구자 A가 실제로 정보 공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보에 대한 집적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는지를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본 선택지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출제경향 분석]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밑줄 친 ㉠의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이는 질문지를 읽는 과정에서 출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온전히 진행되기도 전에 선부르게 선택지를 보며 판단에 돌입하는 것은 문제 풀이를 어렵게 만들며, 답을 도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적 부담도 늘어나게 한다. 이 문제를 통해서는 각 문제 유형에 따라 풀이 과정이 달라야 하며 또한 그러한 과정에 맞춰서 문제 풀이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겠다.

[정답해설]

② : 먼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민원을 제기한 갑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른 경우,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갑은 해당 건과 관련이 있는 00시의 조례를 근거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하였다.

밑줄 친 ㉠에 따르면 갑과 같은 사람들이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으므로 ‘조례’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불일치하는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조례와 운영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건 I	조건 II
운영규정	00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거나 혹은 00시 소재 직장 재직자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조례	상동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혹은 법정보호자

따라서 위 규정 중 서로 다른 부분인 운영규정의 조건 II를 조례와 동일하게 수정하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

[오답해설]

① : 본 선택지와 관련한 부분을 본문에서 살펴보면 조례에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나 운영조건과 조례의 내용상 본질적인 차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의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③, ④, ⑤ : 조례에 따라 운영규정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인데 본 선택지들은 모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

[출제경향 분석]

앞선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실무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 문제는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제시하고, 이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빠르게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글의 논의를 따라가며 읽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7급 공채에 실용적인 내용의 글뿐만 아니라 다소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글들도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정답해설]

- ③ : ㉠ 이전에서 본문의 필자가 설명한 부분은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참이라고 믿고 있던 것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함으로써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 중에서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지만”이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임에도 그것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지만”으로 수정해야 문맥상 적절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 된다.

[오답해설]

- ① :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짓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참으로 믿고 말하는 경우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경우이다. ㉡의 이어진 내용에서는 전자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본문의 ㉡ 부분에는 후자를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
- ② : ㉡의 바로 앞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참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과 달라 거짓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선택지처럼 수정하면 ㉡의 앞 문장과 서로 다른 내용이 되므로 수정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④ : ㉡의 다음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필자는 ‘단순히 거짓인 말’과 ‘거짓말’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단순히 거짓인 말’은 사실과 달라서 참이 아닌 말이지만, ‘거짓말’은 의도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표현임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의도적 거짓말에 해당할 것이므로 본문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 ⑤ :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그는 거짓을 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화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과 일치되는 참을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그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의도와는 다르게 진실을 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선택지는 본문의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